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김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아동·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 변화와 인지 발달, 생활 반경과 사회 관계의 확대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의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이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서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는 드물었다. 2003~2008년 기간 동안 본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 대상 중다패널설계 방식의 국내 첫 패널조사 연구로서 청소년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연구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 선정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각 2,300여명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조사 데이터 공개, 학술대회 개최, 분석 보고서 발간 등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연구 4차년도인 올해에는 제1~3차년도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주요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한 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 1년간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이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데이터의 초4패널(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시간에 따른 개별 초기 청소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HLM 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함수를 확인한 결과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있어서 개별 초기 청소년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는 양친부모 가족 여부,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 최종학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 가정 유무, 형제자매 유무, 전학유무,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3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친부모 가족 여부, 성별은 정적인 효과를 감독, 애정, 방임은 부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단, 이 결과는 생활만족도의 초기값과 강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정책제언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생활만족도, 가족구조, 가족기능, HLM, 잠재성장모형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이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청소년 행복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초4패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선형 모형을 실시

3. 주요결과

- 부모구성과 관련하여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와 거주하는 경우는 전체의 89.9%를 차지하며 친어머니만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4.7%, 친아버지+새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5% 임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이에 생활만족도는 증가추세를 나타냄
-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양친부모가족 여부,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인 것으로 나타남. 즉, 양친부모 가족이 비양친부모 가족보다,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애정이 높을수록, 방임이 낮을수록, 학대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
-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함수를 확인한 결과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있어서 개별 초기 청소년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는 양친부모 가족 여부,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 최종학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 가정 유무, 형제자매 유무, 전학유무,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3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친부모 가족 여부, 성별은 정적인 효과를 감독, 애정, 방임은 부적인 효과를 나타냄. 단, 이 결과는 생활만족도의 초기값과 강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제언

- 가족구조,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 및 필요성 촉구
- 청소년, 가족이 함께 하는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확대
- 가족구조 강화를 위한 건강가족 정책의 전반적 강화
-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부모양육방식 교육, 선도 프로그램 마련, 보급
- 초기 청소년 신체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생활만족도	7
2. 생활만족도 연구경향	8
1) 심리학	8
2) 경제학	10
3) 사회학	11
4) 정치학	13
3. 생활만족도 예측요인	15
1) 가족구조	15
2) 가족기능	17
3) 통제변인	18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문제	23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24
3. 주요 변인의 측정	24
4.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27
1) 기초모형	28
2) 조건모형	29

IV. 결과	31
1. 연구대상 일반특성	33
2. 주요 변인자료	34
3. 상관관계	35
4. 연구모형분석	37
1) 기초모형	37
2) 조건모형	38
V. 결론	43
1. 요약 및 결론	45
2. 논의	46
VI. 정책제언	49
1. 현황 및 문제점	51
2. 제언	52
참고문헌	53

표 목차

<표 IV-1>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	33
<표 IV-2> 주요변인자료	34
<표 IV-3>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36
<표 IV-4> 무조건 모형: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38
<표 IV-5>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대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 영향	40
<표 IV-6>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 영향	41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론

최근 긍정심리학의 발달은 최적 적응과 행복과 관련된 영역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ristotle 시대부터, 행복의 추구하고 좋은 삶의 성취는 철학자와 신학자의 주된 관심 영역이었으며 사회과학의 근본적 임무로 간주되어 왔다(Seligman, 2002).

행복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최근 주로 활용하는 개념은 주관적 복지감이며(Minkov, 2009), 이중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복지감의 인지적 측면으로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복지감의 정서적 측면인 행복감과 더불어 주관적 복지감의 중요한 하위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며(Pacek & Radcliff, 2008), Diener 등(1999)은 행복감이 일반적으로 지속기간이 짧으며 무의식적 동기나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받는 정서적 측면인데 반면 생활만족도는 보다 장기적, 의식적 평가로 삶의 가치관 또는 목표에 영향을 받는 보다 지속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말한다.

주관적 복지감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들은 종종 다양한 개념들을 상호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용어들을 “행복”과 동의어로 보고 있지만(Diener, 1994; Seligman, 2002) 많은 연구에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행복, 주관적 복지감의 각기 서로 다른 의미를 반영하는 만큼 이 둘을 구별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Gundelach & Kreiner, 2004; Helliwell & Putnam, 2004). 본 연구는 이 두 개념 중 특히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념인 생활만족도에 주목한다.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행복과 관련되어 있으며 좋은 삶의 성취로 간주되곤 한다. 반면에 생활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우울과 불행과 관련된다. 생활만족도로 표현되는 건강한 심리적 상태는 종종 사회적 경제적 자원과 성공의 부산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며(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많은 연구들이 생활만족도가 긍정적 개인·행동·심리·사회결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다(Lyubomirsky et al., 2005). 낮은 생활만족도를 갖는 경우 2년 뒤 우울과 심리적 장애 진단을 예측한다는 보고도 나타난다(Lewinshohn et al., 1991).

생활만족도는 긍정심리학의 주된 구성요소(Gilman & Huebner, 2003)이며 생활만족도의

측정은 모든 범위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복지감과 정신병리학의 지표를 제공한다. 주관적 복지감의 주요 지표로서 생활만족도는 정신 병리학적 문제발달을 완충할 수 있는 강점을 규명하고 이를 발달시키는 긍정 심리과학의 포괄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Veenhoven, 1988).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연구들은 아동, 청소년들이 긍정적 범위에서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Huebner 등(2000a)은 9-12학년에 있는 청소년 5,545 명 중 73%가 매우 만족하거나 즐거운 수준의 생활만족도 응답을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유사한 연구결과가 다양한 국제비교연구(Greenspoon & Saklofske, 1997; Huebner et al., 2000a, b; Kuntsche & Gmel, 2004; Leung & Zhang, 2000; Neto, 2001; Nickerson & Nagle, 2004; Park & Huebner, 2005)와 특수학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Brantley et al., 2002; McCullough & Huebner, 2003)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청소년기가 시작해서 지속되는 동안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Suldo & Huebner, 2004b), 이스라엘(Ullman & Tatar, 2001), 한국(Park 2005), 중국(Chang et al., 2003)등의 국제연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상향적 접근은 행복이 기쁘거나 불쾌한 순간과 경험의 함에 의해 도출된다고 하면서 일상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기 청소년기에 중요한 가족과 관련한 전형적 경험은 현재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구재선·김의철, 2006).

청소년 행복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족과 관련한 변인은 1960년대 이후로 가족구조변인, 가족기능변인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가족의 구조적 결손보다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보다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에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기는 하나 최근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구조변인의 영향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김준호·안호용·김선애·김선업, 2002; 조아미·임영식,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족과 학교에서의 생활경험이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데이터의 초4패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HLM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시간에 따른 개별 초기 청소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생활만족도
2. 생활만족도 연구경향
3. 생활만족도 예측요인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생활만족도

긍정심리학 분야는 행복을 성취하고 ‘좋은 삶’을 이루는 방식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까지 거의 정신병리학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시각을 정신건강스펙트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게끔 유도한다(Fabricatore, Handal, & Fenzel, 2000).

어떻게 우리가 행복감을 성취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그들의 삶을 지각하는 방식을 밝혀내는 것이다.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헌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단지 다양한 심리적 상태(긍정적 감정, 자아존중감)의 결과일 뿐 아니라 심리적 상태와 심리사회적 체계의 중요한 예측요인(우울, 신체건강 등)임을 밝힌다(Gilman et al. 2004).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부수적 결과 이상으로 개념화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만족도가 환경과 행동 간의 매개요인이자 중재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Suldo와 Huebner(2004b)는 생활만족도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청소년문제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하였으며 McKnight 등(2002)도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내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가 잠재적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생활만족도의 증가가 스트레스가 심리적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생활만족도를 가진 청소년은 낮은 생활만족도를 가진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으로 외현화되는 비율이 낮다. 즉, 생활만족도가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중재요인(완충제)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Suldo & Huebner, 2004a).

긍정적, 부정적 감정과 기질 같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환경적, 가족적, 사회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2. 생활만족도 연구경향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사회과학 영역에서 생활만족도, 주관적 복지감, 행복감 등 행복 관련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사회과학 영역에서 행복 관련 개념들에 대해 어떠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Inglehart, Foa, Peterson, & Welzel, 2008; Ng, 2008b; Proctor, Linley, & Maltby, 2009). 파악된 영역은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이며 이들 학문 영역별로 생활만족도 연구경향과 관련이론들을 살펴보겠다.

1) 심리학

(1) 연구경향

심리학에서의 생활만족도 연구는 행복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유쾌한 상태라는 ‘쾌락 주의적 입장’과 행복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이라는 ‘자기실현적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이 두 입장은 심리학에서 ‘긍정심리학’이 태동하게 된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전자의 입장에서 행복을 탐구하는 학자들은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주관적 복지감, 행복감, 생활만족도, 몰입 경험, 긍정 정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후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 즉 성격적 강점과 덕목(지혜, 용기, 창의성, 관용, 절제, 영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석만, 2008).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노력하였다. Diener가 1984년에 제시한 주관적 복지감 개념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예이다(Proctor, Linley, & Matby, 2009).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개념 정립과 행복 연구에서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행복학에 관한 다학제적 학술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행복연구학회지(Journal of Happiness Studies)’의 주된 주제는 좋은 삶(good life)에 관한 이론, 주관적 복지감에 관한 경험적 조사, 행복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 등이며 주로 행복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변인을 탐구하고 특정 집단의 행복감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한승진·이연주·송강영, 2008). 행복연구학회지에서 주로 제시된 심리학적 변인은 성격, 정서, 욕구, 만족, 몰입 등이었으며 사회학적 변인은 경제력, 가족, 교우, 취업, 문화 등이다. 심리학자들은 정부 정책을 만들고 한 국가의 성공을 정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관적 복지감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심리학 이론과 실험이 정치적 통치구조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운태, 2010).

(2) 관련이론

행복의 심리학적 이론으로는 욕망충족이론, 비교이론, 목표이론, 적응과 대처이론 등이 있다. 첫째, 욕망충족이론은 인간은 식욕, 성욕,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등과 같은 다양한 욕망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욕망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이론이다. Maslow(1970)의 욕구의 위계적 발달 이론과 관련하여 상위욕구로의 발달은 하위욕구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권석만, 2008). 둘째, 목표이론은 인간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를 향해 진전되고 있다고 믿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입장이다(Austin & Vancouver, 1996). 주관적 복지연구의 선구자인 Wilson(1967)은 인생에서 목표와 성취간의 격차가 작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하면서 문화에 따라 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와 유형이 다르다고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인간의 내재적 동기와 잘 부합할 때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본다. 셋째, 비교이론 또는 괴리이론은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그 기준과의 긍정적 차이를 인식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Michalos, 1985). 이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지적 해석, 정보처리과정을 강조한다. 행복의 자기보고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들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선택적으로 사회적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Lyubomirsky, 2001; Lyubomirsky & Ross, 1997). 넷째, 적응과 대처이론은 아무리 긍정적인 환경과 행복감 속에 있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행복감이 저하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둔감화 혹은 습관화라고 하기도 한다. 적응은 수동적인 과정인데 반해 대처는 능동적인 적응과정이다. 대처능력은 주관적 복지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낙관성과 연관되어 있다(Diener et al., 1999). 낙관주의자들이 비관주의자들보다 수행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과 건강에 대한 부정적 소식을 더 잘 받아들이고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더 잘 직면한다고 하였다(Apinwall & Brunhart, 2000). 이 밖에 행복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상향이론(bottom-up theory)과 하향이론(top-down theory)이 있다.

2) 경제학

(1) 연구경향

경제학은 지난 30여 년간 생활만족도나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학문 영역이다(Bruni & Porta, 2005; Di Tella & MacCulloch, 2006; Easterlin, 2002; Kahneman & Krueger, 2006; Layard, 2005; Offer, 2006). 행복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법의 대표적 척도는 국내총생산(이하 GDP)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GDP를 ‘발전’ 또는 ‘진보’를 측정하는 도구로 간주해 왔으며 ‘경제수준’ 또는 ‘생활수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김운태, 2010). 하지만 GDP 측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경제지표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행복을 측정하는 경제적 접근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경제적 접근을 비판한 가장 유명한 주장은 ‘이스털린 역설(Easterlin's Paradox)’이 있다. 미국 경제학자 Richard Easterlin은 GDP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평균적 행복감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서양 사회의 실질임금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부가 아닌 개인 수준에서 측정되면 소득과 개인 행복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Frey & Stutzer, 2002b; Heady & Wooden, 2004, Kahneman et al., 2006). 이에 개인수준의 소득과 국가수준의 부를 함께 연구한 시도들이 나타났다(Schyns, 2002).

소득 이외에 다른 경제적 변수인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은 명확했다(Frey & Stutzer, 2000). 실업은 복지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Winkelmann & Winkelmann, 1998).

개인은 인플레이션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 Tella 등(1997)은 1%의 인플레이션이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1인당 국민소득이 2% 감소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Layard(2005)는 행복감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사고에 변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때로는 경제성장이 환경과피를 통해 복지를 감소시키기도 한다(Ng & Ng, 2001). 경제학자들은 이미 GDP 설명력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생산, 소득, 소비는 궁극적 목표가 아니며 국가성공지표의 중요한 부분이 GDP나 1인당 GDP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Ng, 2008a).

(2) 관련이론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욕구이론(need theory), 비교이론(comparison theory) 등이 있다(Scyns, 2002).

첫째, 욕구이론은 Maslow(1970)의 욕구위계설에 기반한 것으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는 소득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Schyns, 2002).

둘째, 비교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상대적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절대적 소득의 변화가 주관적 복지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즉,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자신의 소득이 가지는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의 전반적인 부의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개인의 행복감 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며 사회에서의 부의 상승이상을 경험한 사람만이 행복감의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론이다(Easterlin, 1974; 2003; Inglehart, Foa, & Peterson, 2008에서 재인용).

3) 사회학

(1) 연구경향

사회학 분야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Ng, 2008a) 행복감 연구의 대표적 연구자 중 하나인 사회학자 Veenhoven(2008)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는 실용적 이유, 이데올로기적 이유, 이론적 이유로 사회학에서 주관적 복지감이 활발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관련 개념에 대한 사회학 분야의 연구가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다. Veenhoven(2008)은 사회학에서 주로 활용하는 행복관련 변수로 근대성, 복지국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등을 들고 있다(Veenhoven, 2006).

특히 사회적 지지의 경우 사회학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사회학은 특히 가족간 유대, 우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주관적 복지감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 유대가 주관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에는 물질적 지원과 비물질적 지원이 있으며(Putnam, 2000) 비물질적 지원에는 정보, 감정적 지지, 행동

교정 등이 있다. 경험적 연구들은 친밀한 관계와 주관적 복지감 간에 강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Lucas, Clark, Georgellis, & Diener, 2003).

사회학에서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영역은 복지국가제도이다. 특히 공공복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들은 발전된 복지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더 높은 주관적 복지감을 갖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Veenhoven, 2008).

사회참여 또한 사회학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개인시민은 종종 사회참여를 통해 긍정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Putnam, 2000). 그러나 실증연구결과는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하지 못하였다(Veenhoven, 2008).

Veenhoven은(2008)은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이 그들 사회체계의 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행동 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학 분야에서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이론

사회학에서 행복에 대해 논하는 이론들로 사회구성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학자들은 행복을 좋은 삶에 대한 집합적 개념에 의해 형상화되는 인지적 ‘구성체’이며 비교, 특히 ‘사회적 비교’의 결과라고 말한다(Veenhoven, 2008).

첫째,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은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사회구성이론은 우리가 현실에 대한 심적 표상을 마치 블록을 쌓는 것과 같은 집합적 개념을 활용하여 ‘구성한다’고 간주한다. 사회구성주의는 인간의 사고를 강조하며 감정적 경험이나 타고난 동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은 ‘아름다움’이나 ‘공정함’과 같은 개념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행복은 삶에 대한 공유된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합적 개념들이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평가를 만든다. 구성체주의적 시각은 행복이 별 가치가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치부한다. 또한 시간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한다(Berger & Luckman, 1966; Veenhoven, 2008에서 재인용).

둘째,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은 사회학 분야의 고전적 연구자 중 하나인 Stouffer(1949)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가 근간이 되었다. 사회비교이론은 다양한 비교이론 중 하나이며 위에서 언급한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하여 행복이 있는 그대로의 삶과 원하는

삶 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원하는 삶과 있는 그대로의 삶이 유사하다면 주관적 복지감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관적 복지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Veenhoven, 2008).

4) 정치학

(1) 연구경향

정치학 분야에서 행복감 연구를 시작한 것은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 비해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Pacek & Radcliff, 2008). 정치가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복,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요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Radcliff, 2001).

일부 문헌들에서 민주주의(Frey & Stutzer, 2000b; Inglehart, 1990; Veenhoven, 1996), 정부의 질(Helliwell & Huang, 2005), 정부의 규모(Bjornskov et al., 2005; Lapinski et al., 1998; Veenhoven, 2000), 정치적 참여(Dorn et al., 2007; Frey & Stutzer, 2002a), 정치적 당파성(partisanship)과 이데올로기(Di Tella & MacCulloch, 2005)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Pacek & Radcliff, 2008).

통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Helliwell 과 Huang(2008)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좋은 통치의 지표(index)로 세계은행의 6가지 척도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들과 국가평균 삶의 만족도 간에 강한 선형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경제학자인 Layard(2005)는 공공정책의 목표가 ‘복지감’ 혹은 ‘행복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행복을 창조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부강한 국가에서 경제적 성장은 더 이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는 정부의 질을 체계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정의,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Ott, 2010). 세계은행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좋은 정부에 관한 지표(Indicator of good governance)를 개발하였다. Ng(2008a)은 장기적 복지에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사적 소비보다 특정 영역에 대한 공공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적절한 공적 지출 항목은 행복에 공헌하며 따라서 이 분야에서 약간의 비효율성을 감수하더라도 공적지출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하였다. 또한 Layard(2005)는 직업-생활균형(work-life balance), 가족생활,

빈곤층 지원, 높은 실업률 감소, 정신보건, 지역사회생활과 관련한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였다. Frey(2008)는 행복감의 원천을 크게 산출물 효용(outcome utility)과 절차적 효용(procedural utility)으로 구분한다. 산출물 효용은 종종 금전적인 용어 그리고 특히 소득으로 정의되는 도구적 재화나 서비스에 의해 형성된 효용이며 절차적 효용은 제도화된 과정 하에서 생활과 행위를 통해 획득되는 효용으로 복지감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부의 질이 산출물 효용 뿐 아니라 절차적 효용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2) 관련이론

비교정치학에서 행복감, 생활만족도 등 행복관련 개념을 설명하는 비교복지국가 이론으로 수렴이론, 정치결정이론, 문화영향이론 등을 들 수 있다(박병현, 2005).

첫째, 수렴이론은 1970년대까지 비교복지국가 연구에서 산업화나 경제성장 혹은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산업사회의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열쇠는 사람들의 합의, 이데올로기, 계급간의 갈등 또는 문화가 아니라 기술 즉 산업화이며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의 사회제도는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 비슷해진다고 주장한다. 수렴이론은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 변수로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 있기 때문에 흔히 ‘산업화 논리’라고 불리고 있다.

둘째, 정치결정이론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지만 산업화나 경제성장, 그리고 고령화의 수준이 동일할지라도 복지국가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발달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서는 노동운동의 힘, 국가제도 등이 있다. Orloff와 Skocpol(1984)는 사회정책 결정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정치제도의 종류, 국가 관료의 주도권 발휘여부 등이 사회보장제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셋째, 문화영향이론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는 사회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는 가치, 태도, 또는 어떤 사회가 오래전부터 지녀온 관습이나 전통 등이 그 사회의 인간에 대한 관념, 인간생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범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또는 어떤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신념이나 가치는 자원개발, 권리분배 등의 과정을 제한하는 중요한 개입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생활만족도 예측요인

또한 행복에 대한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심리학(주관적 복지감, 행복감, 생활만족도, 몰입경험, 긍정정서, 성격, 지혜, 용기, 창의성, 관용, 절제, 영성), 경제학(개인수준의 소득, 1인당 GDP, 실업, 인플레이션), 사회학(근대성, 복지국가, 사회적 불평등성, 사회적 참여, 사회지지), 정치학(민주주의, 정부의 질, 정부의 규모, 정치적 참여, 정치적 당파성, 이데올로기, 공공지출, 대상별 공공정책) 등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검토하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수준의 변수로는 성격, 개인수준의 소득(주관적 경제상황으로 측정)과 대표적 사회인구학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이 포함된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변인 중 특히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 가족구조, 가족기능 변인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기로 하겠다.

1) 가족구조

(1) 다문화가정 여부

최근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사회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되며 이러한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여부가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다문화가족 특성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2) 양친부모 가족 여부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관계된 두드러지는 요인은 부모의 혼인상태 또는 양친부모 가족 여부이다. 부모의 이혼이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감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으며(Grossman & Rowat, 1995) 연구들은 어떻게 아동이 경험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한다(Greene et al., 2006). 일반적인 수준에서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은 청소년의 복지감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Demo & Acock, 1996). 반면 보다 복잡한 가족관련 변수(예: 부모의 관심 부족)들이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Flouri & Buchanan, 2002; Grossman & Rowat, 1995)한다. 예를 들어 Grossman과 Rowat(1995)는 부모관계를 열악하게 지각하는 경우 캐나다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호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Heaven 등(1996)의 경우에도 가족기능은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외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신경증적 질환, 정신병과 부정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한다. Zullig 등(2005)은 가족구조의 다양한 측면이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 예는 (ㄱ) 다른 친척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 후견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ㄴ) 아버지와만 사는 경우, (ㄷ) 어머니와 다른 어른과 사는 경우 등이다.

(3) 형제자매 유무

건강한 청소년 적응은 부모와의 관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복잡한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형제자매 관계의 질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Oliva & Arranz, 2005). 예를 들어 스페인 청소년에 대한 Oliva와 Arranz(2005)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의 형제관계 적응은 측정된 심리적, 가족적 관계변수(부모의 허용, 부모의 자아존중감, 친밀감, 또래 애착,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중 어느 것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형제자매관계 적응이 위의 모든 요소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형제자매관계가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는 대조적으로 외동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많은 연구들에서 외동아이의 어려움(예: 외로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기술 훈련기회, 스포츠 활동에서의 낮은 성취, 덜 행복하고, 또래들 간에서 덜 인기 있고, 부모가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준다던가 어른의 사고를 지나치게 빨리 받아들이던가, 과잉보호된다는)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주장하고 있지만(Veenhoven & Verkuyten, 1989), 다양한

실증연구들은 이러한 신념에 반론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네델란드의 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외동아이의 생활만족도나 즐거운 감정은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와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지도 그들 자신을 또래에서 인기 없는 아이로 인식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스포츠 등 활동에는 덜 참가하여 이러한 활동에 능숙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Veenhoven & Verkuyten, 1989).

2) 가족기능: 양육태도(감독, 애정, 방임, 학대)

Shek(1997, 1998, 2002)은 중국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간의 부모자녀갈등 척도 혹은 열악한 가족 기능 척도 모두 생활만족도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특히 이 데이터는 부모-청소년자녀 갈등과 열악한 가족기능이 정신건강문제, 문제행동, 열악한 학업수행, 비행행동, 약물남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Shek, 1997, 2002) 보고한다. Shek(1999, 2002b)은 긍정적으로 지각된 부모관계의 질, 부모의 양육스타일, 부모의 특성, 부모-자녀간 기능이 긍정적 청소년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결과는 남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특성보다 아버지의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Shek, 2005). Shek(2003, 2005)은 연속적인 연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부모의 통제 과정, 부모자녀관계의 질, 가족기능,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 약물남용, 비행행동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가지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그들 부모의 특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Shek, 2003a, 2005a). 또 다른 연구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의 경제적 걱정이 둘 다 낮은 수준의 생활만족도, 삶에 대한 감정적 질, 자아존중감, 통제감, 정신질환,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다(Shek, 2003, 2005). 유사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를 받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낮은 생활만족도를 가질 뿐 아니라 더 무기력하게 느끼거나 부모의 행동통제,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hek, 2005).

상관관계 연구는 가족구조, 부모양육스타일, 부모의 감정적 사회적 지원, 가족갈등과 같은 가족변수의 역할이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초점을 둔다. Suldo와 Huebner(2004b)는 권위적 부모양육스타일을 세 가지 영역, 사회적 지지-관여(social support-involvement), 엄격-감독형(strictness-supervision), 심리적 자율성 승인형

(psychological autonomy granting)으로 나누면서 청소년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Ortman(1988)은 지지적인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의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의 사회적 통제감/책임감이 생활만족도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중국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도 서구 청소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Leung 등(2004)은 어머니의 관심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 둘 모두가 현재, 미래의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Leung 등(2004)은 가족, 학교, 청소년 자신의 생활만족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친구만족도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며 한국학생을 연구한 Park(200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3) 통제변인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학력과 소득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있다(Gilman & Huever, 2000). 다양한 연구들에서 인구학적 변수와 청소년 생활만족도간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논하고 있다. Huebner 등(1998)은 연령이 다면적 학생만족도(간략척도)와 약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Ash와 Huebner(2001)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르투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Diener 등(1985)의 생활만족도를 활용해 연구한 Neto(1993),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BMS생활만족도를 측정한 Seligson 등(2003)의 연구, 역시 미국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uebner 등(200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최근 들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는 중요한 변인 중에 건강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운동과 생활만족도간에는 긍정적 상관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Gilman(2001)은 스스로가 사회적인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거나 구조화된 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관련 연구에서 Vilhjalmsson과 Thorlindsson(1992)은 아이슬란드 청소년의 경우 활발한 운동과 클럽, 그룹 스포츠 참여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노, 우울, 정신생리학적 징후, 흡연, 음주와 상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한다. 유사한 연구결과가 Maton(1990)에 의해 이루어진 미국 청소년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생활만족도는 의미 있는 도구를 활용한 활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Valois 등(2004)의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와 다양한 신체 활동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덴마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한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학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 지적된다. 개인이 다른 지리적 지역에서 더 나은 직업과 기회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사 횟수와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거주 지역에서의 자녀의 거주시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와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Brown & Orthner, 1990). 하지만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꼭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 원가족에게 발생한 어려움으로 아동 청소년 혼자 거주보호(residential care)지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감스럽게도 거주보호환경에서의 생활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많으며 이러한 이주가 종종 아동을 악화시킨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예를 들어 Sastre와 Ferriere(2000)는 거주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프랑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원가족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낮은 생활만족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영향변인을 바탕으로 가족구조를 다문화가정 여부, 양친부모가족 여부, 형제·자매 유무로 가족기능을 감독, 애정, 방임, 학대로, 통제변인을 성별, 건강, 전학유무,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으로 설정하였다.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3. 주요 변인의 측정
4.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제 3 장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이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구조, 가족기능이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초기 청소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1-1] 가족구조(다문화가정 여부, 양친부모가족 여부, 형제자매 유무)는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2] 가족기능(감독, 애정, 방임, 학대)은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시간에 따른 개별 초기 청소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1] 가족구조(다문화가정 여부, 양친부모가족 여부, 형제자매 유무)는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2] 가족기능(감독, 애정, 방임, 학대)은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초4패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데이터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은 초1, 초4, 중1 3개 중다패널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실태 및 변화를 2010년부터 7년간 반복 추적 조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010년 당시 초1, 초4, 중1 학생 및 보호자 약 13,200명이다. 초기 표집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도별, 도시규모별로 할당된 표본 학교들은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바 있다(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 서정아·조홍식, 2012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초4패널 1차, 2차, 3차년도 데이터를 종단 분석하였다.

3. 주요 변인의 측정¹⁾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가족구조(다문화가정 여부, 양친부모가족 여부, 형제자매 유무), 가족기능(감독, 애정, 방임, 학대)을 독립변인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건강, 전학유무,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을 살펴보았다. 주요변인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만족도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이가영(2006)이 제작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3문항으로 구성(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한 척도 중 삶에 대한 인지적 행복을 측정하는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²⁾.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긍정적인 쪽이 높은 점수를 갖도록 재부호화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³⁾.

-
- 1) 주요 변인 중 생활만족도, 다문화가정 여부, 양친부모가족 여부, 형제자매유무, 성별, 건강, 전학유무,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모두 측정되었으나 감독, 애정은 1차년도, 방임, 학대는 2차년도, 3차년도에만 측정되었다. 이는 양육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변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에 기반한다.
 - 2) 변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를 참조하기 바란다.
 - 3) 생활만족도의 측정가능성 및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생활만족도를 단일한 문항으로 측정할 경우 명확한 의미를 반영하지

2) 다문화가정 여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질문지의 부모용 설문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의 교육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가구특성 문항을 종합한 후 수정·보완한 척도(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 학생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까’라고 질문하고 1= 다문화가정이다, 2=다문화 가정이 아니다로 응답토록 하였으며 더미처리를 위해 2=다문화 가정이 아니다를 0으로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3) 양친부모가족 여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질문지의 부모용 설문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의 교육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가구특성 문항을 종합한 후 수정·보완한 척도(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하고 1=친아버지+친어머니, 2=친아버지만, 3=친어머니만, 4=친아버지+새어머니, 5=친어머니+새아버지, 6=새아버지+새어머니, 7=새아버지만, 8=새어머니만, 9=부모님 모두 안계심으로 응답토록 하였으며 1을 양친부모가족, 2~9를 비양친부모가족으로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4) 형제자매 유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질문지의 부모용 설문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의 교육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가구특성 문항을 종합한 후 수정·보완한 척도(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 학생은 형제자매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1=형제자매가 없다, 2=형제자매가 있다로 응답토록 하였으며 더미처리를 위해 2=형제자매가 있다를 0으로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못할 수 있다는 비판(Ratzlaff et al., 2000)이 있으나 Inglehart와 Klingmann(2000), Veenhoven(2007)은 단일한 문항의 측정가능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개인적, 생태학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 생활만족도를 단일한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데이터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도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를 각각 단일한 문항으로 측정한 바 있다.

5) 감독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로 원 척도에서는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보완하여 3문항으로 측정된 척도(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감독수준이 높은 쪽이 높은 점수를 갖도록 재부화한 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삭제 시 신뢰도 계수가 향상되는 1개 문항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를 제외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707$ 였다.

6) 애정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로 원 척도에서는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보완하여 4문항으로 측정된 척도(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긍정적인 쪽이 높은 점수를 갖도록 재부화한 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4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20$ 으로 현저히 높았다.

7) 방임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4문항으로 구성(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한 것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삭제시 신뢰도 계수가 현저히 향상되는 1개 문항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를 제외하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784$ 였다.

8) 학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4문항으로 구성(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한 것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학대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값을 갖도록 재부화한 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삭제시 신뢰도 계수가 증가하는 첫 번째 문항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를 제외하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19$ 이다.

9)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 성별은 1=남자, 0=여자, 건강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1=매우 건강하다, 2=건강한 편이다, 3=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게 한 것을 긍정적인 쪽이 높은 점수를 갖도록 재부호화한 후 사용하였다. 전학유무는 ‘해당 학년이 된 이후 전학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있다, 0=없다, 부친의 최종학력은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 졸, 4=대졸, 5=대학원 졸, 소득은 세후 연소득(만원)으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자료로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요변인자료로 생활만족도, 다문화가정 여부, 양친부모가족 여부, 형제자매유무,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수준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은 SPSS for Window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함수를 추정하는 개별 청소년 내(within-person)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청소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별 청소년 간(between-person)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HLM 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인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이하 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단자료에 대한 다층모형은 변화함수를 추정하는 1단계 모형과 변화에 있어 개인차를 설명하는 2단계 모형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모형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2단계 모형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가족구조, 가족기능에 따라 개별 초기 청소년간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선형모형(HLM)은 데이터의 형태가 위계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위수준에 내포된(nested) 형태일 경우 유용한데 종단분석의 경우 개인이 시간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위계적 선형모형이 적절하다.

종단분석을 하는 경우 선형으로 분석할 것인지 비선형으로 분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와 같이 관찰시점이 세 시점인 경우는 선형임을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찰시점이 적을수록 가능한 간명한 모형을 통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audenbush & Bryk, 2002). 발달변화 분석을 위해서 먼저 1단계 모형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변화를 설명하고 2단계 모형을 통해 개별 청소년간의 변화 정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1) 기초모형

(1) 1단계 모형

본 연구에서 1단계 모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반복관찰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의 무선효과가 유의미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모형을 통해 절편과 시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의 기울기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확인되면 2단계 모형을 검증할 수 있다. 2단계 모형에서는 먼저 개별 청소년의 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율의 무선효과가 유의한가를 확인하고 유의미한 경우 각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시간경과에 따른 기울기에 대해 개별 청소년의 무선효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1단계 모형을 검증하고 이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만 개인차를 설명하는 2단계의 독립변인을 추가하여 초기상태와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를 설명하도록 한다. 초기값과 기울기의 무선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1단계 모형의 변수인 시간이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의 초기상태 및 변화율을 충분히 설명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단계 모형의 변인을 통해 나머지 부분의 설명을 시도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설명하고 있는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2) 2단계 모형

2단계 모형에서는 먼저 예측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개별 청소년의 발달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2단계 모형은 전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 평균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고정효과(fixed effect) 외에 각 개별 청소년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확인할 수 있어 무선효과모델이라고 한다.

개별 청소년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2단계 모형의 각각의 무선효과가 유의미한 경우에 2단계 모형의 예측변인을 추가하여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것이다. 각각의 무선효과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1수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전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무선효과라 하는데 무선효과가 유의미한 경우에만 개별 청소년기 전체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무조건 모형으로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의 변화의 개인간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므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인을 통해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2) 조건모형

HLM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에서는 독립변인 값이 청소년에 따라 변할 뿐 아니라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의존적 변인(time-dependent variable)일 경우는 1단계 모형에 추가한다. 그리고 개별 청소년에 따른 차이만을 고려한 시간 독립적 변인(time-independent variables)일 경우는 2단계 모형에 추가한다(김동기·홍세희, 2007).

2단계 모형에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의 초기값에 독립변인을 추가하고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독립변인을 추가한 것을 조건모형(conditional mode)이라 한다. 본 연구의 2단계 모형에서 설정된 변인들은 가족구조, 가족기능이다.

제 4 장

결 과

1. 연구대상 일반특성
2. 주요 변인자료
3. 상관관계
4. 연구모형 분석

제 4 장 결 과

1. 연구대상 일반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학년	4학년	2,378(34.1)	성별	여자	3,272(47.7)
	5학년	2,378(34.1)		남자	3,589(52.3)
	6학년	2,219(31.8)		합계	6,861(100.0)
	합계	6,975(100.0)	연간 전학경험 유무	없다	6,496(94.7)
종교	종교가 없다	3,143(45.8)		있다	365(5.3)
	종교가 있다	3,718(54.2)		합계	6,861(100.0)
	합계	6,861(100.0)	부모구성	친아버지+친어머니	6,147(89.9)
가족구성	부모(아버지와어머니)+ 자녀	5,723(83.8)		친어머니만	322(4.7)
	한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389(5.7)		친아버지+새어머니	35(0.5)
	(한)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자녀	47(0.7)		새아버지+새어머니	2(0.0)
	(한)조부모+부모+자녀	479(7.0)		새어머니만	1(0.0)
	(한)조부모+한부모+ 자녀	152(2.2)		부모님모두안계심	72(1.1)
	기타	41(0.6)		합계	6,835(100.0)
	합계	6,831(100.0)	최종학력: 모친	중졸이하	143(2.2)
최종학력: 부친	중졸이하	164(2.6)		고졸	3,196(49.0)
	고졸	2,496(38.8)		전문대졸	967(14.8)
	전문대졸	773(12.0)		대졸	2,037(31.2)
	대졸	2,617(40.7)		대학원졸	176(2.7)
	대학원졸	377(5.9)		합계	6,519(100.0)
	합계	6,427(100.0)	근로여부: 모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2,478(38.0)
근로여부: 부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117(1.8)		일을 하고 있다	4,037(62.0)
	일을 하고 있다	6,320(98.2)		합계	6,515(100.0)
	합계	6,437(100.0)			

학년은 4학년 34.1%, 5학년 34.1%, 6학년 31.8%이며 성별은 여자 47.7%, 남자 52.3%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54.2%, 연간 전학경험이 있는 경우가 5.3%를 차지하였다. 가족구성은 부모(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인 경우가 전체의 83.8%이며 부모구성은 친아버지+친어머니인 경우가 89.9%였다. 부친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모친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49.0%로 가장 많았다. 부친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98.2%, 모친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62.0%이다.

2. 주요 변인자료

본 절에서는 주요 변인인 생활만족도, 다문화가정여부, 양친부모가족 여부, 형제자매유무, 감독, 애정, 방임, 학대의 수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IV-2 주요변인자료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단계 변인	시간		7,134	0	2	1.00	.817
	생활만족도 1		2,260	1	4	2.92	.920
	생활만족도 2		2,380	1	4	2.98	.859
	생활만족도 3		2,220	1	4	3.02	.858
2단계 변인	가족 구조	다문화가정 여부 (1=다문화가정, 0=다문화가정아님)	2,374	0	1	.02	.124
		양친부모 가족 여부 (1=비양친부모, 0=양친부모)	2,378	0	1	.11	.319
		형제자매 유무 (1=있음, 0=없음)	2,378	0	1	1.89	.315
	가족 기능	감독	2,375	1	4	3.49	.664
		애정	2,375	1	4	3.30	.639
		방임	2,167	1	4	1.53	.562
		학대	2,166	1	4	1.77	.645
	통제 변인	성별 (0=여자, 1=남자)	2,378	0	1	.52	.500
		건강	2,378	1	4	3.30	.620
		전학유무 (0=없다, 1=있다)	2,378	0	1	.07	.257
		부친의 최종학력	2,234	1	5	3.03	1.064
		소득	2,241	0	40,000	4,305.31	2,681.88

기술통계치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이에 생활만족도는 점차 증가하였다. 가족구조 변인으로는 다문화가정 여부, 양친부모 가족 여부, 형제자매 유무를 가족기능변인으로는 감독, 애정, 방임, 학대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건강, 전학유무,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을 사용하였다. 가족기능 중 감독은 평균 3.49(백분위 83점), 애정은 평균 3.30(백분위 73.33점), 방임은 평균 1.53(백분위 17.66점), 학대는 평균 1.77(백분위 25.55점)이다. 통제변인 중 건강은 평균 3.30(백분위 76.66점), 소득은 평균 4,305.31만원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구조, 가족기능 변인들은 3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 동안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내용 변인만 선정되었다. 생활만족도는 종단자료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결측치가 증가하였다. 다층 모형에서는 모든 개인이 모든 측정 시점에서 모두 응답한 완전자료(complete data)가 필수는 아니다(홍세화박언하·홍혜영, 2006). 따라서 불완전 사례(incomplete cases)도 자료분석시 제외하지 않았다.

3. 상관관계

측정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양친부모가족 여부,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친부모 가족이 비양친부모 가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감독, 애정이 높을수록 방임, 학대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건강할수록, 부친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다문화가정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양친부모 가족 여부, 감독, 애정, 방임, 성별, 건강, 전학유무, 부친의 최종학력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인 경우 비양친부모 가족인 경우가 많으며 감독, 애정 수준이 낮고 방임 수준이 높으며 청소년 건강수준이 낮고, 전학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아지며, 부친의 최종학력이 낮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양친부모 가족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형제자매 유무, 감독, 애정, 방임, 학대, 건강, 전학유무,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으로 나타나 비양친부모의 경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감독, 애정수준이 낮고 방임, 학대수준이 높으며 청소년의 건강수준이 낮으며 전학경험이 있고 부친의 학력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표 IV-3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구분	생활만족도	다문화가정 여부	양친부모 가족 여부	형제자매 유무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전학 유무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
생활만족도	1												
다문화가정 여부 (1=다문화가정, 0=다문화가정 아님)	-.009	1											
양친부모 가족 여부 (1=비양친부모, 0=양친부모)	-.066 ***	.054 ***	1										
형제자매 유무 (1=있음, 0=없음)	-.021	.014	.056 ***	1									
감독	.198 ***	-.051 ***	-.095 ***	.004	1								
애정	.358 ***	-.049 ***	-.067 ***	.003	.433 ***	1							
방임	-.362 ***	.027 *	.104 ***	-.019	-.245 ***	-.357 ***	1						
학대	-.191 ***	.017	.043 **	.036 **	-.148 ***	-.222 ***	.243 ***	1					
성별 (0=여자, 1=남자)	.087 ***	.035 **	.002	.007	-.166 ***	-.109 ***	.037 **	.169 ***	1				
건강	.291 ***	-.027 *	-.054 ***	-.039 **	.096 ***	.162 ***	-.171 ***	-.093 ***	.036 **	1			
전학유무 (0=없다, 1=있다)	.009	.027 *	.050 ***	.049 ***	.005	.018	-.006	.002	-.019	.000	1		
부친의 최종학력	.054 ***	-.076 ***	-.163 ***	-.038 **	.083 ***	.118 ***	-.155 ***	-.105 ***	-.051 ***	.035 **	.029 *	1	
소득	.030 *	-.012	-.043 ***	-.059 ***	.010	.021	-.038 **	-.017	.000	.010	-.013	.137 ***	1

*p<.05, **p<.01, ***p<.001

형제자매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학대, 건강, 전학유무,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으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학대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이 열악해지며 전학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부친의 최종학력이 낮으며 소득이 낮은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의 최종학력이며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애정 수준이 높고 방임과 학대 수준이 낮고, 건강 수준이 높고 부친의 최종학력이 높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에 대한 감독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애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의 최종학력으로 애정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과 학대가 적어지며 여자 청소년에 대해 부모의 애정 수준이 높고 애정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부친의 최종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학대, 성별, 건강,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으로 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학대수준도 높아지며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서 방임이 더 나타나며 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수준이 낮아지고 부친의 최종학력과 가족소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학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건강, 부친의 최종학력으로 학대 수준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건강수준이 낮아지고 부친의 최종학력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모형분석

1) 기초모형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 모형(HLM)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한다. 다층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을 통해서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단계 모형을 통해서 변화에 있어 개별 초기 청소년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변화하고 있는지 만약 변화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_{ti} = \pi_{0i} + \pi_{1i}*(TIME_{ti}) + e_{ti}$$

위와 같은 모형의 시간의 경과 외에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어떠한 예측변인도 추가하지 않은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이라 한다. 무조건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다른 예측변인을 추가할 수 있다. 대상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의 전체평균은 2.9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의 기울기에 대한 무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V-4 무조건 모형: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초기값(β_{00})	2.941	0.019	153.998***
기울기(시간)(β_{10})	0.047	0.0123	3.823***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2
초기값(r_0)	0.550	0.302	3472.195***
기울기(시간)(r_1)	0.216	0.046	2424.929***
Level 1(e)	0.744	0.554	

* $p < .05$, ** $p < .01$, *** $p < .001$

2) 조건모형

기초모형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함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청소년 초기값의 무선효과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의 전체 평균에서 벗어난 개인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의 무선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의미는 대상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있어서 개별 초기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조건모형은 이러한 초기 청소년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즉 개별 초기 청소년의 초기상태와 변화율에 있어서 청소년간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를 위해 1단계 독립변인인 시간에 따른 변화율의 개인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어떤 변인이 개별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함수의 초기값에 따른 변화율을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 중 본 연구에서 2단계 모형을 통해 투입되는 변인은 가족구조, 가족기능, 통제변인과 관련된 변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단계의 변인들이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의 초기상태 및 발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구조, 가족기능, 통제변인을 투입한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인이

투입된 모형을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s)이라고 한다. 조건모형의 1단계와 2단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Y_{ti} = \pi_{0i} + \pi_{1i}*(TIME_{ti}) + e_{ti}$$

2단계:

$$\begin{aligned} \pi_{0i} = & \beta_{00} + \beta_{01}*(다문화가정여부_i) + \beta_{02}*(양친부모가족여부_i) + \beta_{03}*(형제자매유무_i) \\ & + \beta_{04}*(감독_i) + \beta_{05}*(애정_i) + \beta_{06}*(방임_i) + \beta_{07}*(학대_i) + \beta_{08}*(성별_i) \\ & + \beta_{09}*(건강_i) + \beta_{010}*(전학유무_i) + \beta_{011}*(부친최종학력_i) + \beta_{012}*(소득_i) + r_{0i} \end{aligned}$$

$$\begin{aligned} \pi_{1i} = & \beta_{10} + \beta_{11}*(다문화가정여부_i) + \beta_{12}*(양친부모가족여부_i) + \beta_{13}*(형제자매유무_i) \\ & + \beta_{14}*(감독_i) + \beta_{15}*(애정_i) + \beta_{16}*(방임_i) + \beta_{17}*(학대_i) + \beta_{18}*(성별_i) \\ & + \beta_{19}*(건강_i) + \beta_{110}*(전학유무_i) + \beta_{111}*(부친최종학력_i) + \beta_{112}*(소득_i) + r_{1i} \end{aligned}$$

기초모형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함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는 양친부모 가족여부,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최종학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 가정 유무, 형제자매 유무, 전학유무,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비양친부모 보다 양친부모 가족인 경우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았으며($p<.10$) 부모의 감독($p<.05$), 애정($p<.001$)이 높을수록 방임($p<.001$), 학대($p<.05$)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았다. 통제변인과 관련해서는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p<.05$)이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았으며 건강할수록($p<.001$), 부친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p<.10$)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았다.

표 IV-5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대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 영향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초기값(π_0)			
초기값(β_{00})	2.881	0.095	30.257***
가족구조변인			
다문화 가정 유무(β_{01})	0.169	0.133	1.265
양친부모 가족 여부(β_{02})	-0.141	0.075	-1.882†
형제자매 유무(β_{03})	0.003	0.048	0.063
가족기능변인			
감독(β_{04})	0.084	0.034	2.470*
애정(β_{05})	0.380	0.037	10.212***
방임(β_{06})	-0.146	0.036	-3.986***
학대(β_{07})	-0.065	0.029	-2.208*
통제변인			
성별(β_{08})	0.084	0.035018	2.408*
건강(β_{09})	0.164	0.030593	5.385***
전학유무(β_{010})	0.069	0.069334	0.999
부친최종학력(β_{011})	-0.028	0.016594	-1.738†
소득(β_{012})	0.000	0.000004	1.33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IV-6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 영향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기울기(π 1)			
초기값(β 10)	-0.025	0.061	-0.422
가족구조변인			
다문화 가정 유무(β 11)	-0.082	0.094	-0.873
양친부모 가족 여부(β 12)	0.093	0.048	1.921†
형제자매 유무(β 13)	-0.000	0.031	-0.015
가족기능변인			
감독(β 14)	-0.048	0.021	-2.249*
애정(β 15)	-0.121	0.024	-4.898***
방임(β 16)	-0.053	0.024	-2.179*
학대(β 17)	0.001	0.020	0.075
통제변인			
성별(β 18)	0.144	0.024	5.880***
건강(β 19)	-0.000	0.021	-0.025
전학유무(β 110)	-0.014	0.048	-0.310
부친최종학력(β 111)	0.010	0.011	0.868
소득(β 112)	-0.000	0.000	-1.013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2
초기값(r_0)	0.424	0.180	2971.222***
기울기(r_1)	0.188	0.035	2389.384***
Level 1(e)	0.713	0.509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이의 3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영향을 살펴보면 양친부모 가족 여부, 성별은 정적인 효과를 감득, 애정, 방임은 부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양친부모 가족에 비해 비양친부모 가족의 경우에 ($p<.10$),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경우($p<.001$)에 생활만족도가 더 증가하고 부모의 감득 수준이 높을수록($p<.01$), 부모의 애정이 높을수록($p<.001$) 생활만족도가 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단지 양친부모 가족 여부, 애정, 방임이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강한 관련이 있어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양친부모 가족 여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비양친부모 가족 청소년의 경우 생활만족도의 초기치가 낮고 초기치가 낮음으로 인해 증가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기치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각 변인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생활만족도의 초기값이 높음에도 증가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초기값, 변화율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제 5 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논의

제 5 장 결 론

1. 요약 및 결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데이터의 초4패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HLM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시간에 따른 개별 초기 청소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가족구조를 다문화가정 여부, 양친부모가족 여부, 형제·자매 유무로 가족기능을 감독, 애정, 방임, 학대로, 통제변인을 성별, 건강, 전학유무,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초4패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4패널 1차, 2차,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은 4학년 34.1%, 5학년 34.1%, 6학년 31.8%이며 성별은 여자 47.7%, 남자 52.3%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54.2%, 연간 전학경험이 있는 경우가 5.3%를 차지하였다. 가족구성은 부모(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인 경우가 전체의 83.8%이며 부모구성은 친아버지+친어머니인 경우가 89.9%였다. 부친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모친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49.0%로 가장 많았다. 부친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98.2%, 모친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62.0%이다.

둘째,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양친부모가족 여부,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의 최종학력,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친부모 가족이 비양친부모 가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감독, 애정이 높을수록 방임, 학대가 낮을수

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건강할수록, 부친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대상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의 전체평균은 2.9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의 기울기에 대한 무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넷째, 초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는 양친부모 가족여부, 감독, 애정, 방임, 학대, 성별, 건강, 부친최종학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 가정 유무, 형제자매 유무, 전학유무,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비양친부모 보다 양친부모 가족인 경우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았으며($p<.10$) 부모의 감독($p<.05$), 애정($p<.001$)이 높을수록 방임($p<.001$), 학대($p<.05$)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았다. 통제변인과 관련해서는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p<.05$)이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았다.

다섯째,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이의 3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영향을 살펴보면 양친부모 가족 여부, 성별은 정적인 효과를 감독, 애정, 방임은 부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양친부모 가족에 비해 비양친부모 가족의 경우에 ($p<.10$),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경우($p<.001$)에 생활만족도가 더 증가하고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p<.01$), 부모의 애정이 높을수록($p<.001$) 생활만족도가 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단지 양친부모 가족 여부, 애정, 방임이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강한 관련이 있어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논의

연구결과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가족구조와 더불어 가족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최근 가족구조와 가족기능 중 가족기능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본 연구결과 약한 수준이기는 하나 가족기능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가족구조 중 양친부모 가족 여부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족의 구조적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임을 주지시켜주었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들의 증가를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다양한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에 양친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거나 한부모와 거주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방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다행인 사항은 변화율에 대해서는 비양친가족의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록 초기값은 낮지만 추후에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가족기능 중 양육태도는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본 연구결과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 방임, 학대는 특히 생활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큰 질병, 사망, 가족의 해체와 같은 급격한 생활사건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경험이 청소년 행복에 오히려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부모기에 접어들기 전에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실천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강은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다. 건강한 청소년이 더 행복하다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개입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여자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보다 높고 증가율 또한 높은 것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 여자 청소년을 위한 생활만족도,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여부, 형제자매유무, 전학유무, 소득은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편견이 가족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근거 없을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암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외동의 외로움, 우울 등에 대한 연구들도 축적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외동,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 여부에 관계없이 건강, 가족 내의 긍정적 기능이 뒷받침되면 청소년 행복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소득의 영향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행복에 가족의 부유함보다는 가족의 긍정적이고 원활한 기능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제 6 장

정책제언

1. 현황 및 문제점
2. 제언

제 6 장 정 책 제 언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청소년과 가족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개념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현장 중심적 자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가족을 동시에 연계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청소년, 가족 업무가 동일 부처 안에 있어 이들간의 행정적 연계는 가능할 수 있으나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교생의 경우 아동 업무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청소년, 가족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행복을 위해 가족의 구조, 기능 강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청소년과 가족을 연계하여 통합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가족에 대한 업무는 여성가족부 가족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는 상당부분 분리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행복을 위한 지원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가족에 대한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둘 간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가족 지원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일부 지역,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들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종사자 또한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임금체계, 관련 법 등 다양한 전달체계가 아직 원활한 연계에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행복이 가족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가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연계·협력하고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해 전문성을 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제언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가족구조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함은 물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구조 강화를 위한 예방, 사후대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고 있어 가족구조를 총괄하는 포괄적 의미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때 가족기능변인은 가족구조에 비해 현저히 중요한 영향을 청소년 행복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모교육, 양육태도 컨설팅 및 상담 등을 통해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가족기능 관련 변인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에 가족기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분리될 수 없으며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가족복지를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의 시각에서 청소년·가족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스포츠프로그램, 건강진단 프로그램 등이 청소년프로그램, 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쪽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체계 개정 및 활동 공간 확보, 홍보 확대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여자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절대적인 측면에서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초기 청소년기에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만족도 수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심리정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은 접근방식과 특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여자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 중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비교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1), 55-71.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동기, 홍세희 (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한국조사연구학회, 8(2), 21-42.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옥,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연구보고 06-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태 (2010).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23-45.
- 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업 (2002). 가족의 구조·기능과 청소년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3(1), 225-267.
- 박병현 (2005). 복지국가들의 비교: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서울: 공동체.
- 서정아, 조흥식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I 데이터 분석보고서 4(연구보고 12-R14-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아미, 임영식 (2009). 가족구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지위비행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6(1), 137-154.
- 한승진, 이연주, 송강영 (2008). 행복연구학회지 게재 논문의 메타분석적 접근.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13-20.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Ash, C., & Huebner, E. S. (2001). Environmenta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test of cognitive media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3), 320-336.
- Aspinwall, L. G., & Brunhart, S. M. (2000). What I do know won't hurt me: Optimism, attention to negative information, coping, and health. In J. E. Gillham (Ed), *The science of optimism and hope: Research essays in honor of Martin E. P. Seligman* (pp. 163-200). Philadelphia: Templeton Foundation Press.
- Austin, J. T., & Vancouver, J. B. (1996). Goal constructs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3), 338-375.
- Berger, P., &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Doubleday.
- Bjørnskov, C., Dreher, A., & Fischer, J. A. (2005). Do Governments make happy? The impact of government size on life satisfaction: A Test.
- Brantley, A., Huebner, E. S., & Nagle, R. J. (2002).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with mild mental disabilities. *Journal Information*, 40(4), 321-329.
- Brown, A. C., & Orthner, D. K. (1990). Relocation and personal well-being among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0(3), 366-381.
- Bruni, L., & Porta, P. L. (Eds.). (2005).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 Chang, L., McBride-Chang, C., Stewart, S., & Au, E. (2003).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family relations in Chinese adolescents and children.

-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82–189.
- Demo, D. H., & Acock, A. C. (1996).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6, 457–48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Di Tella, R., & MacCulloch, R. (2005). Partisan social happines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2), 367–393.
- Di Tella, R., & MacCulloch, R. (2006). Some uses of happiness data in economic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25–46.
- Di Tella, R., MacCulloch, R., & Oswald, A. J. (1997).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Oxford University. Discussion Paper Series No. 19.
- Dorn, D., Fischer, J. A., Kirchgässner, G., & Sousa-Poza, A.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3), 505–526.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A. David and M. W. Reder(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 Easterlin, R. A. (Ed.). (2002). *Happiness in economics*. Cheltenham: Edward Elgar.
- Easterlin, R. A.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19), 11176–11183.
- Fabricatore, A. N., Handal, P. J., & Fenzel, L. M. (2000). Personal spirituality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ors and subjective well-being.

-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3), 221–228.
- Flouri, E., & Buchanan, A. (2002). Life satisfaction in teenage boys: The moderating role of father involvement and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28(2), 126–133.
- Frey, B. S. (2008).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Cambridge: MIT Press.
-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 Frey, B. S., & Stutzer, A. (2002a).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ey, B. S., & Stutzer, A. (2002b). The economics of happiness. *World Economics*, 3(1), 25–41.
- Gilman, R.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social interest, and frequency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mong adolescent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749–767.
- Gilman, R., Easterbrooks, S. R., & Frey, M. (2004). A preliminary study of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among deaf/hard of hearing youth across environmental sett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143–164.
- Gilman, R., & Huebner, E. S. (2000). Review of life satisfaction measures for adolescents. *Behaviour Change*, 17(03), 178–195.
- Gilman, R., & Huebner, E.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205.
- Greene, S. M., Anderson, E. R., Doyle, E. A., & Riedelbach, H. (2006). Divorce. In G. G. Bear & K. M. Minke (Eds.), *Children's needs III: Development,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p. 745–757).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Greenspoon, P. J., & Saklofske, D. H. (1997).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with Canadian children.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5(2), 138–155.
- Grossman, M., & Rowat, K. M. (1995). Parental relationships, coping strategies,

- received support, and well-being in adolescents of separated or divorced and married pare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3), 249–261.
- Gundelach, P., & Kreiner, S. (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Cultural Research*, 38(4), 359–386.
- Headey, B., & Wooden, M. (2004). The effects of wealth and income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 *Economic Record*, 80(s1), S24–S33.
- Heaven, P., Searight, H. R., Chastain, J., & Skitka, L. J.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health and personality functioning among Australi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4), 358–366.
- Helliwell, J. F., & Huang, H. (2005). How's the job?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in the workplac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63(2), 205–227.
- Helliwell, J. F., & Huang, H.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04), 595–619.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Huebner, E. S., Drane, W., & Valois, R. F. (2000a). Levels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repor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3), 281–292.
- Huebner, E. S., Funk, B. A., & Gilman, R. (2000b).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psychosocial correlates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report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6(1), 53–64.
- Huebner, E. S., Laughlin, J. E., Ash, C., & Gilman, R. (1998). Further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2), 118–134.
- Huebner, E. S., Suldo, S. M., Valois, R. F., Drane, J. W., & Zullg, K. J. (2004). Brie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ex, race, and grade effects in a high school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94(1), 351–356.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4), 264–285.
- Inglehart, R., & Klingemann, H. D.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65–183). Cambridge, MA: MIT Press.
- Kahneman, D., & Krueger, A. B.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Schwarz, N., & Stone, A. A. (2006).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A Focusing Illusion *Science*, 312(5782), 1908–1910.
- Kuntsche, E. N., & Gmel, G. (2004). Emotional wellbeing and violence among social and solitary risky single occasion drinkers in adolescence. *Addiction*, 99(3), 331–339.
- Lapinski, J. S., Riemann, C. R., Shapiro, R. Y., Stevens, M. F., & Jacobs, L. R. (1998). Welfare state regimes and subjective well-being: A cross-na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1), 2–24.
-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Y: The Penguin Press.
- Leung, C. Y. W., McBride-Chang, C., & Lai, B. P. Y. (2004). Relations among maternal parenting style, academic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2), 113–143.
- Leung, J. P., & Zhang, L. W. (2000). Modelling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1), 99–104.
- Lewinsohn, P. M., Redner, J., & Seeley, J.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social variables: New perspectives. *Subjective*

-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141-169.
- Lucas, R. E., Clark, A. E., Georgellis, Y., & Diener, E. (2003). Reexamining adaptation and the set point model of happiness: Reactions to changes in marital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27-539.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6(3), 239-249.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141-1157.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 Maton, K. I. (1990). Meaningful involvement in instrumental activity and well-being: Studies of older adolescents and at risk urban teen-ag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2), 297-320.
- McCullough, G., & Huebner, E. S. (2003).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normally achieving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21(4), 311-324.
-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M.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6), 677-687.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 347-413.
- Minkov, M. (2009). Predictors of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97 nations. *Cross-Cultural Research*, 43(2), 152-179.
- Neto, F. (1993).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metrics properties in

- an adolescent sam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2), 125–134.
- Neto, F. (2001).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in Portuga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1), 53–67.
- Ng, Y. K. (2008a). Environmentally responsible happy nation index: Towards an internationally acceptable national success indica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85(3), 425–446.
- Ng, Y. K. (2008b). Happiness studies: Ways to improve comparability and some public policy implications. *Economic Record*, 84(265), 253–266.
- Ng, S., & Ng, Y. K. (2001). Welfare—reducing growth despite individual and government optimization. *Social Choice and Welfare*, 18(3), 497–506.
- Nickerson, A. B., & Nagle, R. J.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5–60.
- Offer, A. (2006). *The challenge of affluence: Self-control and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since 1950*. Oxford University Press.
- Oliva, A., & Arranz, E. (2005).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53–270.
- Orloff, A. S., & Skocpol, T. (1984). Why not equal protection? Explaining the politics of public social spending in Britain, 1900–1911, and the United States, 1880s–192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6), 726–750.
- Ortman, P. E. (1988). Adolescents' perceptions of and feelings about control and responsibility in their lives. *Adolescence*, 23(92), 913–924.
- Ott, J. C. (2010).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 353–368.
- Pacek, A., & Radcliff, B. (2008). Welfare polic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179–191.
- Park, N. (2005).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children and youth a

- developmental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2), 209–223.
- Park, N., & Huebner, E. S. (2005).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levels and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44–456.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adcliff, B. (2001). Politics, markets,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939–952.
- Ratzlaff, C., Matsumoto, D., Kouznetsova, N., Raroque, J., & Ray, R. (2000). Individual psychological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37–60). Boston, MA: MIT Press.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Thousand Oak, Calif: Sage.
- Sastre, M. T. M., & Ferrière, G. (2000). Family 'declin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9(1), 69–82.
- Schyns, P. (2002). Wealth of nations, individual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in 42 countries: A multilevel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60(1–3), 5–40.
- Seligman, M. E.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son, J. L., Huebner, E. S., & Valois, R. F. (2003).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brie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BMSL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2), 121–145.
- Shek, D. T. L. (1997a).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A pioneer study in a Chinese contex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1), 113–128.

- Shek, D. T. L. (1997b). The relation of family functioning to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4), 467-479.
- Shek, D. T. L. (1997c). The relation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to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5(3), 277-290.
- Shek, D. T. L. (199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1), 53-67.
- Shek, D. T. L. (1999a). Individual and dyadic predictors of family functioning in a Chinese context.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7(1), 49-61.
- Shek, D. T. L. (1999b).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in a Chinese context.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5(1), 27-44.
- Shek, D. T. L. (1999c). Paternal and maternal influenc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nese adolescent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5(3), 269-296.
- Shek, D. T. L. (2002a).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3(4), 497-502.
- Shek, D. T. L. (2002b). The relation of parental qualities to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0(3), 215-230.
- Shek, D. T. L. (2003a).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Chinese adol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15(1), 39-50.
- Shek, D. T. L. (2003b). Econom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Journal of Youth*

- and Adolescence, 32(4), 259–266.
- Shek, D. T. L. (2005a). A longitudinal study of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Chinese adol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Journal of Family Issues*, 26(4), 518–543.
- Shek, D. T. L. (2005b). Economic stress, emotional quality of life,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1, 363–383.
- Shek, D. T. L. (2005c). Paternal and maternal influenc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of Chinese adolescents experiencing economic disadvantag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3), 219–234.
- Shek, D. T. L. (2005d). Perceived parental control processes, parent–child relational qual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2), 171–188.
- Stouffer, S. A. (1949). An analysis of conflicting social nor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4(6), 707–717.
- Suldo, S. M., & Huebner, E. S. (2004a).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2), 93–105.
- Suldo, S. M., & Huebner, E. S. (2004b).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165–195.
- Ullman, C., & Tatar, M. (2001).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sraeli adolescent immigrants: A report on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4), 449–463.
- Valois, R. F., Zullig, K. J., Huebner, E. S., & Drane, J. W. (2004). Physical activity behaviors and perceived life satisfaction among public high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74(2), 59–65.

- Veenhoven, R. (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1), 1-46.
- Veenhoven, R. (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4), 333-354.
- Veenhoven, R. (2000).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2(1), 91-125.
- Veenhoven, R. (2006). Quality-of-life in the modern society measured with happylife years. In: Yew-Kwang Ng & Lok Sang Ho (Eds.) 'Happiness and Public Policy, Theory,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Palgrave-Macmillan (pp. 19-44), New York.
- Veenhoven, R. (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Presentation at OECD Conference on Measurability and Policy Relevance of Happiness, April 2-3, Rome.
- Veenhoven, R. (2008). Sociological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M. Eid &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pp. 44-61). New York: Guilford Press.
- Veenhoven, R., & Verkuyten, M. J. A. M. (1989). The well-being of only children. *Adolescence: an international quarterly devoted to th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psychiatric, sociological, and educational aspects of the second decade of human life*, 24(93), 155-166.
- Vilhjalmsson, R., & Thorlindsson, T. (1992). The integrative and physiological effects of sport participation: A study of adolescent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3(4), 637-647.
- Wilson, A. G. (1967). A statistical theory of spatial distribution models. *Transportation Research*, 1(3), 253-269.
- Winkelmann, L., & Winkelmann, R.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257), 1-15.

Zullig, K. J., Valois, R. F., Huebner, E. S., & Drane, J. W. (2005). Associations among family structure, demographics, and adolescent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195–206.

Abstract

Changes in Young Youths'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nd Influence Factors : Centering on Family Structures and Func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luence of family structures and functions on young youths'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The first, second and third year survey data of elementary school year 4 panels (elementary school grades 4, 5, and 6)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were analyzed.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First, what are factors that influence young youths'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nd

Second, what are factors that influence changes in individual young youths'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over time?

The study conducted a 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analysis using HLM 7.0 for Window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change function of young youths' satisfaction with life, the random effects of the initial values of youth youths' satisfaction with lif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indica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individual young youths in the initial values of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Second, factors that influenced the initial values of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included the presence of both parents, supervision, affection, negligence, mistreatment, gender, health and father's academic background, while the influences of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siblings, experience of school transfers, and incom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as for the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s and functions on changes in the subjects'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over time between elementary school year 4 and 6, the presence of both parents and gender had positive effects, while supervision, affection and negligence had negative effects.

Note that these result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initial satisfaction values, therefore attention should be paid when interpreting the results. The study also made discussions over the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Keywords: Satisfaction with life, family structure, family function, HLM, latent growth curve model.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 · 최항섭 · 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 · 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 · 임희진 · 정효진 · 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 조아미 · 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 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전명기
- 13-R10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윤옥경 · 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배상률 · 성은모 · 이해연 · 김균희 · 이용교 · 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이해연 · 배상률 · 성은모 · 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 · 오현석 · 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 · 김경준 · 김지혜 · 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 · 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경준
- 13-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 단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운 (자체번호 13-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시과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허효주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탁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황진구 · 김지연 · 이해연 · 김광혁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업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토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보고 13-R14-2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 영 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833-5 94330

ISBN 978-89-7816-831-1 (세트)